



## 한국농어촌공사 '고려교' 교량통제는 부실공사 의혹

- ▶ 공사 강화지사 부실관리에 강화군 분통
- ▶ 독높이기 사업 토목공사사업 교량 부실
- ▶ 강화군 무허가 다리 사용, 교량통행제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가 고려지구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사업 토목공사와 관련해 '고려교' 교량을 준공도 않고 무허가로 사용하다가 관리책임 소재의 논란이 일자 안전 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량 다리는 심각하게 균열이 생겨 강화군민 등 사고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강화군에서 교량통행제한 공고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 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는데 군은 주민 등의 안전이 우선임을 설명하고 있다. D등급이란 질문을 두고 철거에 해당하는 교량임을 밝혔다.

문제는 관리 주체의 논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의 책임이라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을 냈다. 교량 위험은 심각 단계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준공도 내지 않고 무허가로 사용해 왔다는 점은 문제로 당국은 태만 행정을 바로 잡으라고 한다.

강화군은 우선적 교량통행제한의 시행 과정 최근 전국에서 다리 붕괴사고가 빈번해 군 차원에서 지역 교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을 알았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강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는 수차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사의 미온적 태도가 교량 안전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

이다. 부득불 '고려교' 교량통행제한이 불가피했던 것은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아 군수 권한대행에게 보고 후 군 예산으로 선 조치에 들어간 사실도 밝혔다.

2010년 10월 긴급 공지된 교량은 특허공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관리청이 아닌 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교량 보완이 요구됐음에도 준공도 없이 사용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강화군으로 이어졌는데 농어촌공사는 강화군의 허가를 득하고 다리를 사용토록 해야 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 교량에 심한 균열은 강화군 조사과정에서 준공을 허가해 주지도 않았는데 약 14년 간 시간이 지났지만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2010년부터 계획된 교량은 2015년 2월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강화군으로 비관리청 공사시행(군도4호) 완료의 따른 준공(한국농어촌공사→강화군)이 요청됐다.

이에 강화군은 준공 관련 자료를 다시 공사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처리하지 않아 준공을 내지 않았다. 태만 행정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강화군민들의 중론이다.

강화군은 2015년 2월27일 보완을 농어촌공사로 요청한 것은 허가 조건 이행과 허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하는 교량 건설이다. 그러나 계획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2016년 10월18일 강화군은 "한



지난 4월 5일 교량전면 통행금지를 시킨 고려교 전경

### 교량통행제한 안내

“고려교” 중대결함발생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긴급안전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통행제한 합니다.

1. 시설물 종류 : 교량 “고려교” (거리27M, 폭9M)
2. 관리 청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웅진지사 (032-930-2529)
3. 통행제한 구간 : 고려교 전체구간
4. 통행제한 기간 : 2024.04.05.(금) ~ 시설안전진단 및 보수시까지
5. 통행제한 대상 : 고려교 이용 차량
6. 통행제한 사유 : 시설물에 대한 중대결함발생보고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로 인한 제한

교량통행제한 공고문

### 법률사무소

http://www.haeonlaw.com | Tel 02-2039- | Fax 02-2039-  
2024년 4월 5일

수신 :   
참조 :   
제목 : 제3종시설물(고려교) 관리주체 검토 의견서

1. 귀 군청에서 검토 의뢰하신 제3종시설물(고려교) 관리주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입과 같이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입 : “제3종시설물(고려교) 관리주체” 검토 의견서
2. 이상과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법인 의견서 일부 생략

국농어촌공사의 준공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회신(제2013-01호)했다. 군은 2017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라고 했다. "준공과 관련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통보했다.

교량 전문가에 따르면 D등급 교량이면 철거가 우선 행정이고 사고가 발생 시 관리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행자 보호를 위해 최악의 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을 해체하고 다시 건설하라는 의견이다.

강화군은 지난달 5일 “고려교” 동행 제한과 관련해 전국 시 군구와 카카오톡 등 SNS로 등으로 공고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알림 행정을 했다. 향후 조치는 물론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웅진지사 관계자는 “현재 ‘고려교’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이달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교량과 관련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 웅진 보석 섬 제1회 '소이작도 해작해작 갯티길 산책' 개최

### 인천관광공사, 웅진군 보물섬 소이작도 여행 초대



인천관광공사와 웅진군은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웅진군 소이작도에서 제1회 '소이작도 해작해작 갯티길 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웅진군의 보물섬 소이작도는 가까운 거리(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약 75분, 방아머리신착장에서 약 110분 소요), 다양한 볼거리, 인심 좋은 섬 주민에 대한 입소문으로 매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본 행사를 대표하는 단어인 '해작해작'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조금씩 잇따라 들추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참가자는 소이작도의 갯티길(섬 둘레길) 약 5km를 산책하며 소소한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갯티 장터'별안 해변을 무대로 펼쳐지는 '바다 버스킹'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가 들려주는 '갯티 별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음식이 맛있기로 정평난 소이작도에서의 든든한 한

끼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섬 밥상'은 사전예약을 통해 1일 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 금액(1인 2만원)에는 점심식사뿐만 아니라

소원 유리병 키링 체험과 소정의 기념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 수익 전액은 섬 주민에게 돌아간다. 기타 코스 정보, 사전예약 방법, 숙소 목록 등 상세내용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new-island-61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제1회 소이작도 해작해작 갯티길 산책을 통해 웅진군 섬의 관광자원과 마을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소이작도영여조합법인의 관광 콘텐츠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군 소이작도는 전국 최초의 4단계 섬특성화사업 대상지로, 섬 주민 소득 증진과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 상품화 △해양 액티비티 운영 △카페 대표메뉴 개발 등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문미순 기자